전남교육청, '다문화학생 개별적 성장' 돕는다

문화다양성 공존 환경 조성·비대면교육 학습격차 최소화

모든 구성원 대상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 의무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59교 지정·운영 등 적극 지원 예정

올 한 해 전남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21. 전남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을 확정해 현장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 기준 전남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84명(0.25%) 증가한 1만 701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5.18%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남 전체 학생 수는 약 12% 줄어든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28%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주 배경 및 현장의 수요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 전남 다문화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학교 다문화교육 활성화,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문화 다양성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모든 구성원 대상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59교 지정·운영키로 했다. 또, 교원별 맞춤형 연수 및 방법의 다양화,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함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의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돕고 학습격차 완화, 학생의 개별적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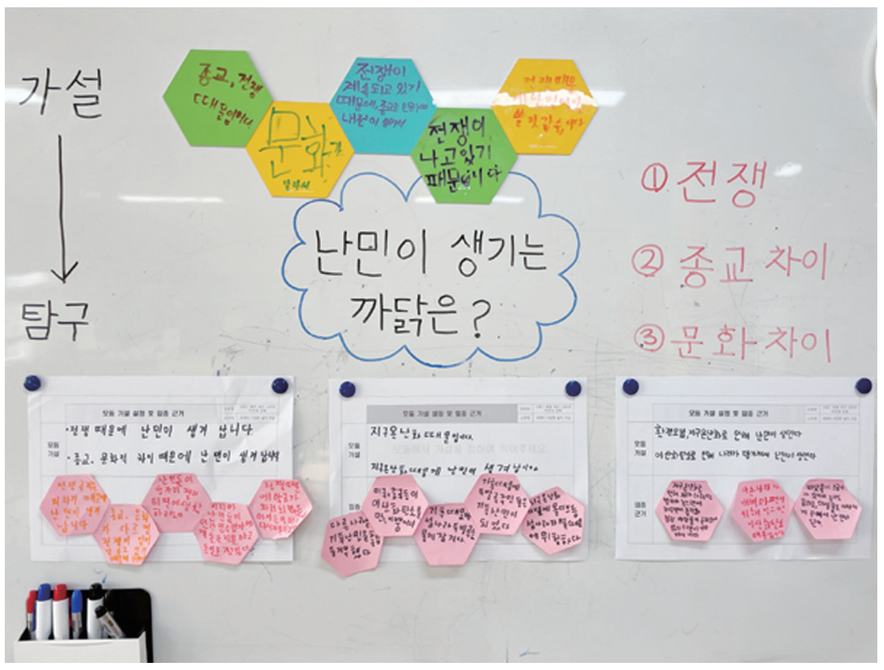
이를 위해 중도입국생 중심이었던 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다문화가정 전체 유치원생으로 확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입국초기 학생이 많은 9개 학교에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인 '한국어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타학교의 중도입국생 전·편입학 즉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학습환경으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멘토링제 확대', '중도입국 학생 담임 맞춤형 연수', '다국어 통·번역 자료 제공', '사각지대 학생의 맞춤형 학습지원 방문 강사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귀화 우수 인재 활용 진로탐색 활동'과 '이중언어 사용 극대화', '자긍심·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활성화, 행·재정적 지원 및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등의 보완, 전남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 '학교 현장 중심의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 네트워크 다양화와 지역별 협의회 정례화, 지역단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공감대 형성,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 확대 등이 그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계획 수립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별, 성장주기별 의식 및 원격학습, 가정학습 환경 등의 제반 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TF협의회 운영, 현장의견 수렴, 전년도 운영 성과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2021년에는 입국 초기 학생의 조기적응 지원만이 아닌,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긍심·사회성 함양과 비대면 상황 속 학습격차 최소화 등을 중점과제로 담았다.



혁신교육과 범미경 과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 19와 가정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나주교육청,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동참 및 여성직원 격려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여성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꽃 나눔 행사를 가졌다.

2020.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을 의미있게 사용하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고 여성직원들에게 꽃을 전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김영길 교육장은 "2020년 하반기 재정집행을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한 해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신대도서관, '부모교육과 가족체험' 특강 프로그램

매월 '부모가 되는 시간', '도서관 가는 우리 가족' 운영

순천시는 3월부터 신대도서관에서 매월 가족 특화 프로그램인 '부모가 되는 시간', '도서관 가는 우리가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부모가 되는 시간'은 가족 간의 건강한 소통법이 중요해짐에 따라 가족 소통법에 중점을 두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주요 강연으로는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의 저자 김현수 작가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의 저자 이임숙 작가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의 저자 김윤정 작가의 강연이 있다.

특히 김윤정 작가의 강연은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어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도 부모교육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체험 프로그램인 '도서관 가는 우리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놀이, 힐링을 위한 치유법 등으로 구성했다.

미술치료 박소정 교수와 놀이치료사 이영애 작가, 음악치료사 정종현 강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참여하고자 하는 가족들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첫 강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고, 프로그램의 참여방법은 오는 8일부터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u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대도서관(061-749-4377)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광주시교육청이 8일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여성의 권리보장(참정권)을 위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요구한 데서 유래됐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휘국 교육감과 류혜숙 부교육감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은 출근길 여성 직원들을 격려하며 미리 준비한 장미꽃을 전달했다.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꽃 소비시장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화훼농가와 상가를 돕기 위한 화훼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최윤희 기자